

處置, 致使, 使役

조경환*

<목 차>

1. 서론
2. 處置와 致使
3. 致使와 使役
4. 處置, 致使, 그리고 使役
5. 결론

1. 서론

把字句는 크게 處置류와 非處置류인 致使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1) a. 他把杯子打破了。
그는 컵을 깨트렸다.
b. 這件事把他氣死了。
이 일이 그를 무척 화나게 했다.

예문 (1a)는 處置류 把字句이며, (1b)는 致使 把字句로 분류된다. 비록 예문 (1)은 모두 把字句에 속하지만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이 두 구문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致使를 處置의 상위 개념으로 두거나 반

*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sampajanno@naver.com)

대로 處置를 致使의 상위개념으로 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에는 모두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데, 즉 處置와 致使는 각각 다른 영역의 문법태(grammatical voice)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하위 개념일 수 없다는 사실이다.¹⁾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處置와 致使의 대표적인 구문인 把字句와 使字句의 비교를 통해서 處置와 致使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것이다.

한편 致使 역시 같은 使動態(Causative voice)를 표시하는 使役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논의되어 여러 혼란을 야기하였는데, 예를 들면 몇몇 기존 연구에서는 使字句, 讓字句, 叫字句를 모두 使役 구문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각 구문의 차이점을 잘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같은 구문의 다른 양상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가 없다.

- (2) a. 他的爲人讓我很失望。
그의 인간성은 나를 실망시켰다.
b. 媽媽讓孩子回家吃飯。
엄마는 아이에게 집에 와서 밥을 먹도록 하였다.

예문 (2a)와 (2b)는 모두 讓字句이며, 使動態에 속하지만 양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본고에서는 중국어의 使動態안에서 使役과 致使 역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보고, 使字句와 讓·叫字句의 비교를 통해 致使와 使役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요컨대 본고에서는 이러한 處置, 致使, 使役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각 구문들의 특징과 그들의 문법태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1) 이에 관해서는 2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2. 處置와 致使

處置와 致使의 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致使를 處置의 상위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處置를 致使의 상위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²⁾

먼저 致使를 處置의 상위 개념으로 보고 處置 역시 致使의 일종이라고 보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郭預(2003)와 葉向陽(2004)은 V_1 (致使사건 서술어)과 V_2 (被使사건 서술어)의 관계에 착안하여 把字句를 크게 두 분류로 나누었다.

첫 번째 유형은 두 개의 사건으로 구성되었는데, 즉 E_1 (致使 사건)이 E_2 (被使 사건)의 출현을 야기하여 致使 상황이 된다는 것이며(3a), 두 번째 유형은 비록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사건으로 구성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사건을 내포하여 致使 상황을 나타낸다는 것이다(3b).³⁾

(3) a. 他把衣服洗乾淨了。 그는 옷을 깨끗이 빨았다.

E_1 (致使 사건): 他洗衣服

→ E_2 (被使 사건): 衣服乾淨了。

b. 我把信燒了。 나는 편지를 태워버렸다(葉向陽 2004:27, 30)

E_1 (致使 사건): 我燒信。

→ E_2 (被使 사건): 信不在了。

E_1 이 E_2 를 야기하므로, E_1 은 원인을 나타내고 E_2 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郭預(2003)와 葉向陽(2004)은 致使를 일종의 인과관계(cause &

2) 致使와 使役 간의 구분에 관해서는 3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3) 郭預(2003:157)는 첫 번째 유형을 '분석형 把字句', 두 번째 유형을 '종합형 把字句'라고 하였다. 葉向陽(2004:27)은 첫 번째 유형을 '雙述 把字句', 두 번째 유형을 '單述 把字句'로 분류하였는데, 이러한 郭預(2003)와 葉向陽(2004)의 把字句에 대한 분류는 기본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다.

effect)로 해석하였는데, 즉 處置 역시 이러한 致使 범주에 속한다고 보았다.⁴⁾

그러나 郭預(2003)와 葉向陽(2004)의 이와 같은 견해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그들은 把字句에서 '把'의 기능과 의미를 경시하였다. 예문 (3)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郭預(2003)와 葉向陽(2004)은 '把'자를 아무런 의미기능이 없는 단순 표지로 처리하였지만, 실제로는 '把'자가 把字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행위자의 소유·통제를 나타내며 이는 把字句의 변천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다.⁵⁾

둘째, 郭預(2003)와 葉向陽(2004)의 분석은 把字句의 역사적인 변천과정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만약 處置가 정말 致使라면 어떻게 把字句에서 甲류(給與류, 放置류)가 제일 먼저 출현하고, 그 다음에 乙류(보어 포함)가 출현하며, 이후 明·清代에 非處置(遭遇·致使) 把字句가 성행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⁶⁾

셋째, 그들의 설명은 把字句의 문법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⁷⁾ 대부분의 把字句에서 주어인 施事(agent)가 受事(patient)보다 현저하고 좀 더 화제적이라는 점에서 이 구문은 使動態가 아닌 主動態(Active voice)의 구문이다(Maldonado 2007/2011:947). 즉 處置는 主動態의 하위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處置가 致使의 하위 유형이라면 把字句는 대표적인 致使 구문인 使字句와 공통된 특성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把字句(處置류)는 使字句와 오히려 정반대의 양상을 보여주며 일부(非處置류)만이 이에 해당될 뿐이다.

苑新政(2004) 역시 處置를 致使의 하위 유형으로 보았지만 그녀(2004:94)는 郭預(2003)와 葉向陽(2004)과는 달리 주어의 有生性(animacy)에 따라 致

4) 郭預(2003:161)는 處置는 일종의 특수한 致使라고 하였다.

5) 이에 관해서는 4장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하였다.

6) 즉 이러한 견해는 소위 處置류 把字句가 먼저 출현하고, 이후 致使 把字句가 출현한 사실을 설명하기가 힘들며, 處置류 중에서도 甲류가 먼저 출현하고 乙류가 나중에 출현한 사실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7) 郭預(2003)와 葉向陽(2004)의 분석형 把字句는 致使라기보다는 사실 전형적인 乙류 구문에 속한다. 또한 “我把錢包丟了。”와 같은 구문도 致使로 보기보다는 處置와 致使 사이의 과도기적인 유형(遭遇 把字句)으로 보는 편이 좀 더 적절하다.

使를 크게 主觀致使와 客觀致使로 구분하였다.

- (4) a. 我還是把腰杆挺了起來。
나는 여전히 허리를 꼴꼴이 세웠다.
b. 人們把無數的動物和礦物混在一起。
사람들은 무수한 동물과 광물을 뒤섞었다.
- (5) a. 那一次把我們笑得全身發顫。
이번에는 우리가 온 몸을 뒤흔들 정도로 웃겼다.
b. 那一晚, 山里的寒氣把旅客們的睡眠凍得收縮。(宛新政 2004:94, 95)
그날 저녁, 산의 한기가 여행객들을 추워 움츠리게 하였다.

주어가 사람인 예문 (4)는 主觀致使이고, 주어가 無生 사물이나 사건인 예문 (5)는 客觀致使에 해당된다.

그런데 예문 (5)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致使 把字句의 예에 해당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예문 (4)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즉 이는 예문 (4)에서 주어인 ‘我’와 ‘人們’이 把-NP인 ‘腰杆’과 ‘無數的動物和礦物’를 의도적인 행위를 수행하여 예상된 결과로 이끌어 내므로,⁸⁾ 이 예문들은 致使 보다는 전형적인 處置의 예문들로 보는 편이 좀 더 적절하다.

이와 같은 宛新政(2004)의 분류상의 혼돈은 致使 把字句에 관한 잘못된 통계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데, 그녀(2004:96, 97)에 따르면 致使 把字句의 S와 把-NP의 경우 분포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8) 즉 宛新政(2004:95)은 주어가 ‘사람[有生]’이면 主觀致使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분류는 處置류 把字句까지 포함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그녀(2004:05)는 主觀致使는 주어가 주체적으로 동작행위를 시행하고 통제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處置의 정의와 정확하게 부합한다.

<표 1> 致使 把字句의 S와 O의 분포(宛新政 2004:96, 97)⁹⁾

致使 把字句	사물		사건	사람	총
S	추상사물	구체사물	48	57	207
	22	80			
O(把-NP)	131		7	69	

한편 宛新政(2004:63)은 전형적인 致使 구문이라고 할 수 있는 使字句에 관해서도 통계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표 2> 使字句의 S와 O의 분포(宛新政 2004:63)¹⁰⁾

使字句	추상사물	구체사물	사건	사람	기타	총
S	259	41	159	57	33	549
O	83		1	465		

만약 宛新政(2004)이 말한 致使 把字句가 致使에 속한다면 使字句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야만 한다. 그러나 使字句의 통계(<표2>)와 비교해 보면 把-NP로 마땅히 사람이 와야 하지만 실제로는(<표1>) 無生 사물과 사건이 138개(66.7%)를 차지하여 사람 57개(33.3%)보다 두 배 이상 많이 차지하였다. 이로부터 우리는 致使 把字句에 관한 그녀의 통계가 확실히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¹¹⁾

9) 宛新政(2004:96, 97)은 致使 把字句의 O의 경우 사람(人)과 사물(物)을 구분한데 반해 S의 경우 사람을 구체 사물에 포함시켰다. 왜 宛新政이 굳이 사람을 사물 안에 포함시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와 같은 분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사람을 구체 사물로부터 분리하여 표기하였다.

10) 아래의 표는 각각 使字句의 S에 대한 통계(Takayuki 2005:90)와 O에 대한 통계(조경환 2014:132)이다.

使字句	NP	VP/AP	절	지시대명사	인간특징 NP	인간	S없는 문장
S	173	87	191	58	27	58	101
使字句	추상 NP	사물	동물·식물	인간특징NP	인간신체	인간	
O	7	12	3	25	15	232	

宛新政(2014:63)의 使字句에 관한 통계는 Takayuki(2005:90)와 조경환(2014:132)의 통계 결과와 기본적으로 일치하므로 使字句에 관한 그녀의 통계는 致使 把字句와는 달리 신뢰할 만하다.

11) 致使 把字句의 주어 역시 사람이 28%를 차지하는데, 使字句의 경우(사람:10%)와 비교하여 거의 3배에 해당되므로 이 역시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편 宛新政(2004:105)은 <표 1>과 <표 2>의 통계 결과에 근거하여 使字句와 致使 把字句의 자질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렸다.

- (6) a. 使字句: $N_1[-人] + 使 + N_2[+人] + V[+人]$
 b. 致使 把字句: $N_1[-人] + 把 + N_2[-人] + V[-人]$ ¹²⁾

(6)에서 알 수 있듯이 致使 把字句의 경우 使字句와 마찬가지로 마땅히 $N_2[+人]$ 이어야 하지만 그녀는 분류를 잘못함으로써 이 구문의 성질을 잘못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宛新政(2004)의 處置와 致使에 대한 분류상의 문제점은 그녀 자신이 제시한 예문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7) a. 這件事使我高興壞了。
 이 일은 나를 너무 즐겁게 했다.
 b. 這件事把我高興壞了。(宛新政 2004:102)
 이 일은 나를 너무 즐겁게 했다.

宛新政(2004:102)은 예문 (7a)와 (7b)는 서로 자유롭게 전환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예문 (7b)의 경우 把-NP는 그녀의 주장과는 달리 사람이 출현하였는데, 즉 (6)과는 달리 使字句와 致使 把字句는 주어와 동사, 목적어 간의 의미자질이 서로 비슷해야만 전환될 수 있다.

요컨대 宛新政(2004:105)의 가장 큰 문제는 主觀致使로 분류된 把字句가 使字句와 극명하게 대립되며 서로 전환될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宛新政(2004)의 분류에서는 主觀致使를 제외하고 남은 客觀致使만이 진정한 致使 把字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李宗宏(2013:120)은 무의식적인 영향이어야만 진정한 致使 把

12) 致使 把字句의 경우 宛新政(2004:105)에서는 주어가 [+人]이라고 하였는데, 그녀의 통계 결과에 따르면 無生주어가 72%이고 有生 주어가 28%이므로 마땅히 [-人]으로 표기해야만 한다.

字句라고 하였는데 이 견해는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인다.¹³⁾ 그(2013:124)는 또한 致使 把字句의 致使性은 VP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문에 있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왜냐하면 VP 자체에 致使 의미가 없더라도 구문은 여전히 致使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 (8) a. 炸起的石頭差點兒把他傷了。
 폭파된 돌이 하마터면 그를 맞혀 다치게 할 뻔했다.
 b. 這一幕很平常的景象却把這兩個青年大大地感動了。(李宗宏2013:124)
 이 평범한 장면이 이 두 청년을 크게 감동시켰다.

우리는 이로부터 致使性은 구문 차원의 개념이라는 것과 원형적인 致使 把字句의 주어는 [-人]의 특징을 지니며, O는 [+人]의 특징을 지님을 알 수 있다.

한편 宋玉柱(1992)는 致使 개념으로 處置를 설명하려는 郭預(2003)·葉向陽(2004)과 宛新政(2004)과는 반대로 處置 개념으로 致使 把字句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그녀(1992:117)는 ‘處置’를 문장 중의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 ‘把’자의 대상에 대해 적극적인 영향을 가해 어떤 변화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정의내리면서 이러한 정의는 非處置류인 遭遇와 致使 把字句까지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의는 모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處置와 致使 把字句간의 존재하는 비대칭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똑같이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요컨대 致使를 상위 개념으로 보던지 處置를 상위 개념으로 보던지 간에 이와 같은 분석으로는 處置와 致使 把字句간에 존재하는 비대칭적인 양상을 설명하기가 힘들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致使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한 다음, 處置와의 관계를 다룰 것인데, 먼저 致使와 使役의 관계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www.kci.go.kr

13) 李宗宏(2013:120)은 致使 把字句를 使因류 把字句라고 칭했다.

3. 致使와 使役

먼저 언어학에서 使動(Causative)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에 관해서 살펴 보도록 하자. Griffith(2006/2010:117)는 ‘使動’은 “주어 NP가 지시하는 무엇 인가에 의해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되고, 시켜지고, 그 유발된 - 시켜진- 상황이 내포절에 의해 기술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 (9) a. I had the students read this article.
나는 학생들에게 이 논문을 읽게 했다.
b. The thought made her gleeful. (Griffith 2010:116-117)
그 생각이 그녀를 기뻐 날뛰게 만들었다.

Griffith(2006/2010:117)는 또한 使動 구문의 주어는 인간이든 추상물이든 구체물이든 모두 사용될 수 있으며, 사동문은 뒤의 명제를 내포한다고 하였는데, 즉 (9a)는 [학생들이 이 논문을 읽었다(The students read this article)]라는 명제를 내포하며, (9b)는 [그녀가 기뻐 날뛰었다(She was gleeful)]라는 명제를 내포한다.

요컨대 Griffith(2006/2010:118)는 使動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 내렸다.

- (10) ‘X causes ‘clause’ ⇒ ‘clause’ (Griffith 2006/2010: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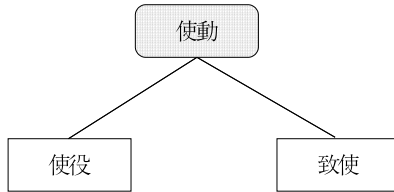
(10)에서 X는 使動 구문의 주어이고, cause는 使動詞(make, force, get)등에 대한 상위어(superordinate)이며, ‘clause’는 내포된 명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정의는 使動態와 使動 구문 전반에 관한 설명일 뿐, 그 역시 使役과 致使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¹⁴⁾

14) 본고의 관점에서 보면 (9a)는 使役に 해당되며, (9b)는 致使에 해당된다.

비록 여러 논문이나 문법서에서는 使役과 致使, 使動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논의하기도 하지만, 이들 간에는 개념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에 본장에서는 使動(Causative)을 使役과 致使의 상위 개념으로 설정하고, 使役과 致使를 구분할 필요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3-1> 使動, 使役, 致使의 관계



중국어의 使役과 致使 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장에서는 그 범주의 가장 전형적인 구문들을 대조시킬 것인데, 이에 가장 전형적인 致使 구문인 使字句와 전형적인 使役 구문인 讓字句·叫字句와의 비교를 통해 致使와 使役간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使役과 致使의 차이점은 뒤에 ‘可是~’ 부가절을 붙여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1) a. 老師讓他回答那個問題，可是他不肯。
선생님은 그에게 그 질문에 대답하게 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b. 老師叫他學生擦黑板，可是他們不肯。(Teng 2005:292)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칠판을 지우라고 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c. 老師的這句話使他不得不回答那個問題。
선생님의 이 말은 그로 하여금 부득이 그 문제를 대답하게 하였다.
- d. *老師的這句話使他不得不回答那個問題，可是他不肯。

예문 (11a)와 (11b)에서와 같이 讓字句와 叫字句는 전형적인 使役을 나타내는데, 선생님께서 그와 학생들에게 시켰지만 그들이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

는 경우들이다. 반면 (11c)와 같은 使字句의 경우에는 ‘老師的這句話’는 그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적인 것으로,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1d)와 같이 이 문장은 비문이 된다.¹⁵⁾ 즉 使役의 경우 被使(피사역주: causee) NP₂는 使事(사역주: causer) NP₁의 말이나 명령을 따를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다. 그러나 致使의 경우에 NP₂는 사건 발생의 원인(致事: cause)인 NP₁을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차이가 있다.¹⁶⁾

이로부터 우리는 使役과 致使 간에는 강제성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使字句는 전형적인 致使 구문으로 분류되며 讓字句와 叫字句는 전형적인 使役 구문으로 분류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양자가 모호한 경우들이 있으며, 이에 관하여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Teng(2005:283-284, 290)은 중국어의 사역 구문은 施事₁이 施事₂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재가하는 것(authorize)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¹⁷⁾

(12) a. 金生讓靈芝接著說完, 靈芝便……

금생은 영지로 하여금 이어서 말을 끝내도록 하니, 영지가 곧……

b. 老師叫學生寫了一篇作文。(Teng 2005:290,292)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작문 한 편을 쓰라고 했다.

Teng(2005:285-287)은 비록 주어와 목적어의 의미역을 구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예문들을 모두 사역 구문으로 보았는데, 즉 Teng(2005)은 ‘使’, ‘叫’, ‘讓’ 모두 구분 없이 使役 동사로 간주하였다.

15) 만약 “*老師使他回答那個問題。”라고 말한다면 역시 비문이 된다. 致使인 使字句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과가 불가피함을 나타내야만 하며, 주어 역시 致事로 바꾸는 편이 낫다. (11c)와 (11d)는 연구자가 추가한 예문이다.

16) 여기에서 使事는 대부분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나 기관을 가리키며, 致事は 사건 발생을 야기하는 원인을 가리킨다.

17) 한편 Teng(2005:289)은 讓자의 경우 허용(concede) 용법도 존재한다고 하였는데, 예를 들면 “把門的讓他進去。”가 있다. ‘叫’자는 이러한 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施事₁은 본고의 使事に 해당되며, 施事₂는 被使에 해당된다.

- (13) a. 我讓他解釋一下。
 나는 그에게 해석을 한 번 해보게 했다.
 b. 我讓他很失望。(Teng 2005:285, 286)
 나는 그를 실망시켰다.
- (14) a. 他叫我嘗了一口菜。
 그는 나에게 맛을 한번 보게 했다.
 b. 他叫我滿意。
 그는 나를 만족시켰다.
 c. 他使我很生氣。(Teng 2005:286)
 그는 나를 화나게 했다.

그러나 NP₁과 NP₂의 의미역을 고려한다면 예문 (13)과 (14) 사이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예문 (13a)와 (14a)는 'NP₁이 NP₂로 하여금 ~하게 하다'라는 使役 의미이며, (13b)와 (14b)는 'NP₁으로 인해 NP₂에게 어떤 결과(상태)를 야기했다'라는 致使 의미를 나타낸다. 비록 (13b)와 (14b)의 주어로 有生의 '我'와 '他'가 쓰였지만 이는 표면적인 형식일 뿐 실제로는 여기에서 NP₁은 使事라기보다는 '我的行爲'나 '他的行爲'와 같은 致事的 환유적인 표현으로 보아야만 하는데, 이는 (14c)와 같은 使字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讓字句와 叫字句에도 致使적인 용법이 있다는 사실은 아래의 예문에서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 (15) a. 那個電影讓他茶飯都喝不下。
 그 영화는 그가 밥도 못 먹게 했다.
 b. 滿嘴的飯叫他說不出話來。
 입 가득한 밥은 그가 말을 할 수 없게 했다.
 c. 過多的酒使他說了一些不該說的話。(Teng 2005:286-287)
 지나친 술은 그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했다.

위의 예문 (15)의 주어 '那個電影', '滿嘴的飯', '過多的酒'는 모두 목적어 '他'로 하여금 원하지 않은 결과를 야기하였는데, 이와 같은 NP₁은 使事が 아닌

致事로 작용하였다.

이로부터 우리는 使役과 致使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비록 使字句가 전형적인 致使 구문이지만 일부 讓字句와 叫字句 역시 致使 용법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대부분의 讓字句와 叫字句가 使役을 나타낸다는 것도 여전히 사실이다.¹⁸⁾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使役과 致使는 使動 범주에서 동등한 위치의 개념인가 아니면 서열상의 차이가 있는 개념인가라는 위계 문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비교적 쉽게 답할 수 있다. 즉 使役이 致使보다 상위 개념이며 좀 더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致使 용법은 바로 使役 용법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使字句의 변천과정으로부터 알 수 있는데, '使'자의 경우 원래 '보내다'·'사용하다'라는 의미로 쓰였고, 이후 뒤에 동사구가 오면서 '보내서 무엇을 하게하다'라는 의미로 변천하였으며 이로부터 使役 의미가 파생되었다(李佐豐 2004, 張麗麗 2005). 이후 '어떤 원인이 누구로 하여금 어떤 상태나 결과를 야기하다'라는 致使 의미로 변천하였는데 이에 관한 예는 다음과 같다.

- (16) a. 魏王因使孟卯致溫圉于周君, 而許之戍也。《戰國策·西周策 2》
 이에 위왕은 맹묘를 시켜 온 땅의 원유를 주군에게 주도록 하고, 진나라의 공격으로부터 주나라를 지켜 줄 것을 허락하였다.
- b. 王不如使魏制和, 《戰國策·秦策 4》
 그러니 이번 강화를 위나라로 하여금 주재하게 하느니만 못합니다.
- c. 齊使向子將而應之。《戰國策·齊策 12》
 제나라는 상자를 시켜 맞서 싸우게 하였다.

- (17) a. 今王破宜陽, 殘三川, 而使天下之士不敢言。《戰國策·秦策 7》
 지금 대왕의 업적을 보면 의양을 박살내고 삼천을 잔폐시켜 천하의 선비들로 하여금 입을 벌리지 못하게 해놓으셨습니다.

18) 使字句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致使를 나타내며, 使役을 나타내는 경우는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는 使字句가 이미 使役에서 致使로 문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 b. 蹶上爲重，頭痛身熱，使人煩懣。”《史記列傳·扁鵲倉公列傳》
 췌인데 증상이 심해서 머리가 아프고 몸에 열이 나 환자를 괴롭힙니다.
- c. 子貢一使，使勢相破，十年之中，五國各有變。《史記列傳·仲尼弟子列傳》
 자공이 한 번 뛰어다니더니 각국의 형세에 균열이 생겨 십년 사이에 다섯 나라에 각기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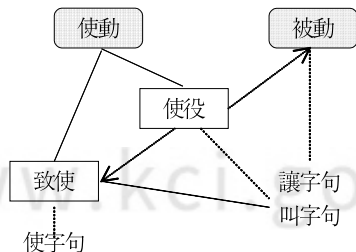
《戰國策》，《史記列傳》의 예들로부터 우리는 이미 고대시기에 使役과 致使 용법이 존재하였음과 오늘날에 비해 NP₁과 NP₂의 有生性이 훨씬 자유롭게 사용되었고, 使役과 致使는 구문에서 판단해야만 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즉 使役을 나타내는 (16a)는 [有生(魏王) - 有生(孟卯)], (16b)는 [有生(王) - 無生(魏)], (16c)는 [無生(齊) - 有生]이다. 고대의 경우 국가가 왕 대신에 사용된 경우가 많았으므로, (16c)의 ‘齊’는 사실상 有生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致使를 나타내는 (17a)는 [無生(事件) - 有生], (17b)는 [無生(事物) - 有生], (17c)는 [無生(事件) - 無生]이다.

한편 讓字句와 叫字句의 경우에는 使字句와 달리 대부분 致使가 아닌 被動으로 변천하였다. 그러나 일부 소수의 讓字句와 叫字句 역시 致使 용법이 있음을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사실상 이 구문은 使役에서 被動과 致使로 변천하였다고 보는 편이 낫다.

따라서 使役과 致使간의 관계에 관한 그림 <3-1>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다.

<그림 3-2> 使役, 致使, 被動의 관계



위의 그림 <3-2>로부터 우리는 使役이 使動態에서 중심 범주임을 알 수 있다. 致使는 使役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왔으므로 使役보다는 하위에 위치해야만 하며, 또한 일부 使役 구문 역시 致使 용법이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중국어에서 使役과 致使의 명확한 구분이 역사 문법에서 일찍이 제시된 바 있다는 사실(李佐豐 2004, 馮春田 1999, 張麗麗 2005)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¹⁹⁾

4. 處置, 致使, 그리고 使役

앞 장에서는 致使와 使役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번 장에서는 이들과 處置와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處置 把字句와 致使 把字句의 차이점을 볼 것인데, 이는 크게 세 가지 방면에서 드러난다.

첫째, 處置 把字句의 경우 동사는 주로 3價(給與류, 放置류, 當作류)와 2價의 타동사인 반면, 非處置류인 致使 把字句의 경우에는 주로 1價의 자동사가 쓰였다(吳福祥 2003:9).²⁰⁾

둘째, 주어에 있어 處置류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행하는 施事인 반면, 致使의 경우에는 사건 발생의 원인을 나타내는 致事가 온다.

셋째, 把-NP의 경우에도 차이가 있는데 處置류의 경우 把-NP는 受事인 반면, 致使 把字句의 경우에는 施事 또는 當事(undergoer)가 온다.²¹⁾

19)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李佐豐(1994:133-134)의 '意使', 馮春田(1999:613-614)의 '具體使役'은 본고의 '使役'에 해당되며, 李佐豐(1994:133-134)의 '致使', 馮春田(1999:613-614)의 '抽象使役'은 본고의 '致使'에 대응된다.

20) 물론 致使 把字句의 경우 동사 자체로는 1價의 자동사이지만 구문 안에서는 2價와 같이 쓰인다는 점을 유념해야만 한다.

21) 致使 把字句의 경우 把-NP 자리에 주로 사람이 오므로 施事라고 보기도 하며, 또한 사건

경우에 따라서는 處置류와 致使류가 형식적으로 구분이 잘 안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8) a. 那班的學生把王老師教慘啦。(薛鳳生 1994:42)
 그 반의 학생들로 인해 왕 선생님의 교사 생활이 비참해졌다.
 b. 王老師把那班的學生教慘啦。(蔣紹愚 2005:233)
 왕 선생님은 그 반 학생들을 혹독하게 가르쳤다.

비록 (18a)와 (18b)의 통사 구조(S+把-NP+VR)와 각 논항의 有生性(人+人)은 같지만 두 구문의 문법태는 다른데, 즉 (18a)는 ‘그 학생들로 인해 王 선생님의 교사 생활이 비참해졌다.’라는 致使를 나타내는 반면, (18b)는 ‘王 선생님이 그 반 학생들을 혹독하게 가르쳤다’라는 處置를 나타낸다.

또한 (18a)의 ‘那班的學生’은 학생 자체를 직접적으로 지시하기보다는 그 반 학생들의 행동이라든지 잘못된 태도라든지 이 반 학생들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가리키므로, 施事가 아닌 致事의 환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²²⁾

이로부터 우리는 S와 O의 의미역과 동사의 타동성이 구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處置 把字句와 致使 把字句는 발생 시기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蔣紹愚(2005:233)는 唐宋시기의 把字句가 ‘處置’라면 현대 중국어에 이르러서는 致使 把字句가 위주가 된다고 하였다.²³⁾ 그러나 蔣紹愚(2005)의 이와 같은 설명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處置류가 여전히 주류이며, 致使 把字句는 소수의 유형이기 때문이다.²⁴⁾ 따라서 蔣紹愚(2005:233)의 이 설명은 唐宋시기에 處置 把字句가 출현하였으며, 이후 致使 把字句가 새로이 출현하였다고 보는 편이 낫다.

을 당한 이로서 當事로도 볼 수 있다.

22) 이와 같은 현상에 관해서는 이미 (13b)와 (14b)에서 살펴본 바 있다.

23) 蔣紹愚(2005:232)는 또한 把字句의 주요 기능이 處置에서 致使로 변천한다고 하였다.

24) 실제로 《許三觀賣血記》의 把字句의 상황을 살펴보면 甲류(160개, 36.1%), 乙류(272개, 61.4%), 致使류(8개, 1.8%), 기타(3개, 0.7%)로 處置는 97.5%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같은 致使를 나타내는 致使 把字句와 使字句에 대해서 좀 더 살펴 보도록 하자. 주어와 목적어, 동사 등 여러 방면에서 공통점이 존재하여 이 두 구문이 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2장에서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설령 致使 把字句와 使字句가 같은 致使를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두 구문 간에는 의미상의 차이가 미묘하게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9) a. 那個黑影子把我嚇了一跳。
 b. 那個黑影子使我嚇了一跳。(劉培玉 2009:34)
 그 검은 그림자가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張豫峰(2014:107)은 致使 把字句의 경우 강렬한 영향을 가진 어떤 外力(致事)이 어떤 사물로 하여금 결과를 출현하도록 야기시켰음을 강조한다고 하였는데, 예를 들면 (19a)의 ‘那個黑影子’는 ‘我嚇了一跳’를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강렬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가졌음을 나타낸다. 반면 使字句는 어떤 外物이 致使 결과와 상태 출현의 원인임을 강조하는데, 즉 (19b)의 ‘我嚇了一跳’의 원인이 바로 ‘那個黑影子’임을 나타낸다.²⁵⁾

한편 張豫峰(2014:98)은 致使 把字句의 ‘把’가 ‘使’와 같은 致使詞로 작용한다고 하였지만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견해에는 동의하지는 않는데, 즉 致使 把字句의 ‘把’는 비록 구체적인 의미가 많이 탈색되었지만 處置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주어의 통제영역을 나타내며, 致使 把字句의 致使 의미는 ‘把’자가 아닌 구문 자체에서 온다고 본다.²⁶⁾

요컨대 致使 把字句와 使字句가 전환될 수 있더라도 두 구문 간의 의미상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며, ‘把’와 ‘使’의 구문에서의 致使 작용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致使 把字句가 處置류에서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5) 이에 관하여 劉培玉(2009:37)은 使字句는 어떤 원인이 어떤 대상으로 하여금 어떤 결과를 야기했음을 나타내는 반면, 致使 把字句의 경우 어떤 사물이 어떤 방식이나 수단을 통해 어떤 대상에 작용하여 어떤 결과가 출현하도록 야기했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26) 그러나 處置와 致使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張豫峰(2014:106)의 설명은 정확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蔣紹愚(2005:231)는 致使 把字句가 '기능 확대'를 통해 발달했다고 보았는데, 즉 술어가 사동 용법을 지나거나, '以/將'뒤의 NP가 인체 또는 '眼'과 같은 인체기관이거나 또는 동사가 '동작-상태'류 이어야 한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將/把+[S+VP]'의 致使 處置式이 형성되고, 이것이 빈번하게 사용됨에 따라 사람들은 기존 조건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바로 '將'과 '把' 뒤에 施事주어문을 부가하여 致使 把字句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견해는 受事주어문에 '把'를 더해 把字句가 형성된다는 朱德熙(1980/1997)의 설명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朱德熙(1980/1997:398)는 "把犯人跑了。"와 같은 遭遇 把字句에서 '把'를 제거하면 나머지는 施事주어문이 된다고 언급하였으므로, 致使 把字句에 관해서도 같은 견해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蔣紹愚(2005)는 處置 把字句와 致使 把字句가 다른 기원을 가진다고 본 셈인데,²⁷⁾ 하나의 구문이 두 개의 기원을 가졌다는 이와 같은 설명은 역사 변천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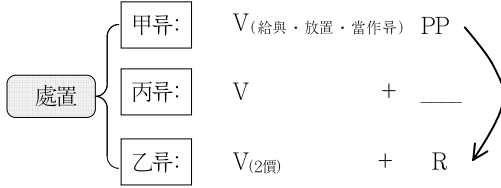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把字句는 다른 문법태로의 전환이라는 특수한 과정을 겪었을 뿐 處置나 致使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모두 연동문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관하여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處置 把字句로부터 致使 把字句의 출현은 구문 자체의 유추 과정에 기인한 것이다. 處置 把字句 내에서도 甲류가 乙류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V 앞뒤에 기타 결과 성분이 출현하지 않는 특수한 유형인 丙류가 존재하였다. 즉 處置류의 원형인 甲류에서 결과 보어, 방향 보어 등의 보어 류와 결합된 乙류로 변천하는 과정 중간에 동사 홀로 쓰이는 丙류("仰山便把茶樹搖。")가 있었다. 그러나 甲류의 PP 역시 把-NP의 이동상의 종점으로 일종의 결과로 작용하였으므로, 결국 乙류 뒤에는 결과를 나타내는 보어류('R'로 표기)와 다시 결합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²⁸⁾

27) 蔣紹愚(2005:229)는 劉子瑜(2002), 吳福祥(2003)의 견해를 따라 處置式은 기본적으로 연동문에서 기원한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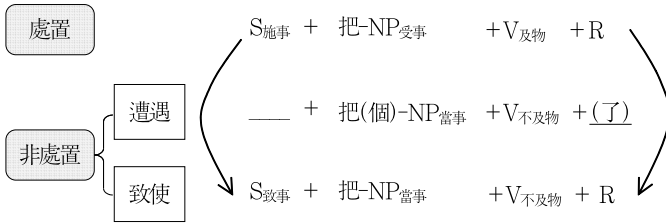
28) 즉 甲류의 PP는 공간적인 종점을 나타내며, 乙류의 R은 시간적인 종점을 나타내는데, 모

<그림 4-1> 處置류 변천 과정



이와 같이 동사 뒤의 요소가 중간에 생략되어 이후 유사한 요소로 보충되는 현상이 處置에서 遭遇를 거쳐 致使 把字句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출현하는데,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²⁹⁾

<그림 4-2> 處置류에서 非處置류로의 변천 과정



“偏把個鳳丫頭病了。”와 같이 화자의 예상치 못함을 주로 나타내는 遭遇 把字句에서는 주어가 施事에서 致使로 변하는 과정에서 생략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며, 동사 뒤의 보어 성분 역시 많이 생략되어 주로 ‘了’자와 공기하게 된다. 그러나 다시 致使류 把字句에 와서는 비어 있었던 주어 자리에 致事가 오게 되며, 동사 뒤에 다시 보어 성분이 오게 된다. 이는 구조적 유사성(structural similarity)에 기인한 구문 자체의 유추 작용으로 處置류(甲류→丙류→乙류)에서 주로 동사 뒤에서 발생했다면, 處置류→非處置류(遭遇→致使)로의 문법태의 전환 과정에서는 주어와 동사 뒤에 두 군데에서 발생했다는 차이가 있다.

두 결과(result)를 나타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29) 즉 處置류에서의 변천 과정은 근원 영역으로 작용하며, 이에 근거하여 유사한 변화가 非處置류로의 변천에서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 주의할 사실은 處置류인 甲류나 乙류 모두 타동사로 丙류 역시 동사의 타동성이 떨어지지 않는지만, 處置에서 致使로의 전환 과정에 있는 遭遇 把字句의 경우에는 동사의 타동성이 떨어짐에 따라 동사 뒤 기타 성분이 생략되는 것뿐만 아니라, 동사 앞 주어 자리에서도 이 施事가 생략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致使에 이르러 주어 자리에는 致事가 출현하고 동사 뒤 기타 성분 역시 출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동사는 處置와 달리 不及物(자동사 또는 형용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 뒤에 다시 기타 성분이 출현하는 것은 역시 處置류로부터의 유추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³⁰⁾

이와 같이 處置, 致使, 使役의 변천 과정에서 구문 자체의 유추가 구문의 형식적인 방면에서 작용했다면 구문의 내부적인 변화도 중요하다. 이미 주어와 목적어의 의미역의 변화, 동사 타동성의 변화 등에 관해서는 언급한 바 있는데, 사실 이러한 현상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바로 관련 有生 논항의 통제(control) 능력이다. 즉 處置류 把字句에서 施事 주어가 통제력을 잃게 됨에 따라 致事로 바뀌는 것처럼, 使字句에서도 주어인 使事가 통제력을 잃게 됨에 따라 致事로 바뀌게 된다.

또한 使字句에서 被使 NP₂는 대부분 有生이므로 有生 NP₂의 통제도 고려해야만 하는데, 즉 有生 NP₂가 통제력을 잃게 됨에 따라 使役 의미에서 致使 의미로 변하게 된다(張麗麗 2005:131). 有生 논항이 통제성을 잃게 된다는 것은 타동성의 하락으로 반영되며, 결국 이 동사는 비자주적이게 된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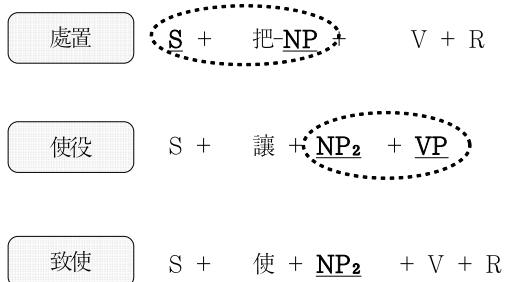
반면 대부분의 讓字句와 叫字句는 NP₂가 뒤에 오는 VP를 통제함에 따라 여전히 使役을 나타내는데, 이는 뒤에 부가절 ‘可是~’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몇몇 讓字句와 叫字句는 통제력을 잃어 致使성을 띌 수 있음도 확인하였지만 이는 극히 소수일 뿐이다.

30) 다시 말해 이는 把字句 자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把字句는 구문 자체가 제한된 사건(delimited event)을 나타내야 하므로 중간의 과도 단계의 유형, 즉 丙류와 遭遇 把字句를 제외하고는 동사 뒤의 기타 성분이 항상 출현해야만 한다.

31) 使動 구문에서는 被使 NP₂의 통제능력이 NP₁보다 좀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 使字句와 讓字句·叫字句의 NP₂는 NP₁과 달리 대부분 有生논항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통제에 따른 문법태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3> 통제 능력에 따른 문법태와 구문 분류



위의 그림 <4-3>에서 有生 논항의 통제 영역은 점선의 타원형으로 표시하였다. 處置의 경우 施事 주어는 把-NP를 통제하며 使役의 경우 NP₂는 뒤의 VP를 통제한다.³²⁾ 致使의 경우 NP₂는 뒤의 VP를 통제하지 못하므로 점선의 통제 영역은 표시되지 않으며 이런 면에서 使役과 큰 차이가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致使 把字句를 중심으로 處置, 致使 그리고 使役까지 살펴 보았다.

먼저 處置와 致使가 다른 개념임을 살펴보았다. 이는 전형적인 處置 구문인 把字句(甲류, 乙류)와 전형적인 致使 구문인 使字句의 비교를 통해 두 구문이 주어, 목적어, 동사 등의 방면에서 완전히 반대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致使를 處置의 상위 범주로 보거나 반대로 處置를 致使의 상위

32) 處置의 경우 施事 주어의 통제는 '把'자의 소유 의미와 관련이 깊으며, 使役의 경우 被使 NP₂의 통제는 自主性和 관련이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점선의 타원형으로 표시하였다.

범주로 보는 견해에는 모두 문제가 있으며, 특히 이러한 분류는 잘못된 통계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다만 非處置류인 致使 把字句의 경우에는 處置와 致使 두 범주의 공통 영역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致使와 使役 역시 같은 使動 범주에 속하지만 다른 특징이 있음을 살펴보았으며, 이 과정에서 전형적인 使役구문으로 알려진 讓字句, 叫字句 역시 致使 용법이 일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處置, 致使, 使役에서 관련 有生 논항의 통제가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함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處置의 경우 有生 NP₁인 施事が 자기 통제 하에 있는 NP₂(受事)에게 의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쳐 결과나 상태가 발생했음을 강조하며, 더욱이 ‘把’자는 NP₂가 施事の 통제 하에 있음을 확실히 나타낸다.³³⁾

致使의 경우 無生 NP₁인 致事が 被使 NP₂로 하여금 어떤 예기치 못하거나 원치 않은 결과를 야기했음을 강조한다. 전형적인 致使구문으로는 使字句가 있으며, 이 외에도 致使 把字句, 일부 讓字句/叫字句도 여기에 속함을 살펴보았다.

使役은 주로 有生 NP₁(使事)가 NP₂(被使)로 하여금 어떤 것을 하도록 시키지만,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전적으로 NP₂에 달려있다. 즉 NP₂가 VP를 하는지는 NP₂의 자유 의지인데, 바로 이러한 점이 致使와 다르다.

이러한 관련 논항의 통제 능력은 그 논항의 有生性, 동사의 타동성, 구문에 큰 변화를 주며, 결국 구문 자체의 문법태를 전환시키기도 한다.

또한 Hopper & Thompson(1980:274)이 말한 것처럼 處置는 고타동적(high-transitive)이다. 이러한 타동성은 致使성과 반비례의 개념이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張伯江 2009:44, 張豫峰 2014:106, 조경환 2014:159). 즉 타동성이 올라갈수록 致使성은 떨어지고, 타동성(及物性)이 내려갈수록 致使성은 상승한다.³⁴⁾ 따라서 致使로서 處置를 설명하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33) 處置류 把字句의 경우 把-NP의 有生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有생이든 無생이든 把-NP는 施事 주어의 영향 하에 있기 때문이다.

34) 이에 관하여 조경환(2014:156-160)은 Stenfanowitsch(2001:290)의 행위자성 연속체(cline of agenthood)에 근거하여 타동 사건(把字句)과 致使 사건(使字句) 간의 차이를 논

마지막으로 處置, 致使, 使役 간의 관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1> 處置, 致使, 使役의 정의와 분류

	정의	구문
處置	A(施事)가 B(受事)를 통제하고 처리하며, B에 의도된 결과 C가 만들어졌음을 강조한다.	把字句(甲류, 乙류)
致使	A(致事)로 인해 B(當事)에게 C가 야기된다. B는 C를 통제하지 못한다.	使字句, 致使 把字句, 讓字句 ₂ , 叫字句 ₂
使役	A(使事)가 B(被使)로 하여금 C를 하라고 시킨다. B가 C를 하고 안 하고는 전적으로 B에 달려있다.	讓字句 ₁ , 叫字句 ₁

< 參考文獻 >

- 박건영(1994), <중국어의 把字句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경환(2010), <把字句와 使字句의 비대칭성 고찰>, 《中國語文學論集》 63, 81-102.
- _____(2013), <유생성과 중국어 문법태의 전환에 관한 연구>, 《中國語文學論集》 80, 129-151.
- _____(2014), 《중국어구문론》, 서울: 한국문화사.
- 馮春田(1999), 《近代漢語語法研究》,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 郭 預(2003), <把字句의 語義構造和論元結構>, 《言語學論叢》 28, 152-181.
- 蔣紹愚(2005), 《近代漢語研究概要》,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蔣紹愚·曹廣順(2005), 《近代漢語語法史研究綜述》, 北京: 商務印書館.
- 李佐豐(2004), <《佐銓》의 使字句>, 《上古語法研究》, 133-143, 北京: 北京廣播學員出版社.
- 李宗宏(2013), <現代漢語使因突顯類致使構式研究>, 華東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 劉培玉(2009), 《現代漢語把字句의 多角度探究》, 武漢: 華中師範大學出版社.
- 劉子瑜(2002), <再談唐宋處置式的來源>, 《漢語史論文集》, 139-164, 武漢: 武漢出版社.
- 宋玉柱(1992), <把字句>, 《現代漢語基本知識》, 114-132, 北京: 語文出版社.

- 薛鳳生(1994), <把字句和被字句的結構意義>, 《功能主意與漢語語法》, 34-59, 北京: 北京語言學院出版社.
- 宛新政(2004), <現代漢語致使句研究>, 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
- 王力(1943/1984), 《中國語法理論》,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 吳福祥(2003), <再論處置式的來源>, 《語言研究》 3, 1-14.
- 葉向陽(2004), <把字句的致使性研究>, 《世界漢語教學》 68, 25-39.
- 張伯江(2009), 《縱施受關係對句式語義》, 北京: 商務印書館.
- 張麗麗(2005), <從使役到致使>, 《臺大文史哲學報》 62, 119-152.
- 張豫峰(2014), 《現代漢語致使態研究》,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 朱德熙(1980), 《語法講義》, 허성도 옮김(1997), 《현대 중국어 어법론》, 서울: 사람과 책.
- Chao, Yuan Ren(1968/2011), *A Grammar of Spoken Chinese*, 北京: 商務印書館.
- Griffiths Patrick(2006), *An Introduction to English Semantics and Pragmatics*, 박철우 옮김(2010), 《언어 의미학 개설》, 서울: 한국문화사.
- Hopper, Paul & Thompson, Sandra(1980), "Transi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 *Language* 56, 251-299.
- Maldonado, Richardo(2007), "Grammatical Voice in Cognitive Grammar", *The Oxford Handbook of Cognitive Linguistics*, 김동환 옮김(2011), 《인지언어학 옥스퍼드핸드북》, 서울: 한국문화사, 946-993.
- Takayuki, Miyake(2005), "A Usage-Based Analysis of the Causative Verb Shi in Mandarin Chinese", *Corpus-Based Approaches to Sentence Structure*, 77-94, Amsterdam: John Benjamin Publishing Company.
- Teng, Shou-hsin(2005), *Studies on Modern Chinese Syntax*, Taipei: Crane Publishing Co.

< Abstract >

A Study on Chuzhi, Zhishi, Shiyi

Cho, Kyunghwan

Chuzhi(處置), zhishi(致使) and shiyi(使役) are representative voice of the Chinese, but they are also often confused so brought a lot of problems in grammatical research.

First, we looked at the different concepts of chuzhi and zhishi. The comparison between the typical chuzhi 'ba' construction and the typical zhishi 'shi' construction shows that the two constructions are completely opposite in terms of object, verb, etc.

Therefore, we also observed that both views of chuzhi as the lower category of zhishi and vice versa are problematic, particularly this classification can produce incorrect statistical results. However, in the case of zhishi 'ba' construction belongs to a common area of the two voices.

Next, zhishi and shiyi also belonged to the same Causative voice, but it was examined that there are other features, and in this process, 'rang' construction also has zhishi usages.

In short, the control of the relevant animated argument played the most important role in the chuzhi, zhishi, shiyi. This argument's ability to control mad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rgument's animacy, the verb's transitivity, and the variation of the construction itself, eventually leading to a shift in voice.

Key words: chuzhi, zhishi, shiyi, voice, control, causative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20. 04. 30	2020. 05. 11 - 06. 02	2020. 05. 31	2020. 06. 05	2020. 06. 30

